

설교통역의 난이도 요인에 대한 비교 분석: 동일화자의 설교발화와 토론발화를 중심으로

김보애(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회 현장에서도 외국어 예배와 통역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설교통역은 어려운 통역 유형으로 인식되지만, 그 원인이 통역사의 통역능력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설교통역 내용의 특수성 때문인지 규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설교발화는 일반적인 담화와는 달리 종교적 어휘의 사용, 은유와 비유의 활용 등에서 독특한 특징이 있다. 설교발화에서 어휘적 특성이나 문장구조의 특수성과 같은 요소들이 통역 난이도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분석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통역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설교통역을 오랜 기간 수행해 오면서 현장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설교통역의 경우 자발적인 봉사자의 헌신으로 통역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커서 언어별, 통역사별로 통역 품질의 격차가 상당하여 비교분석하기 용이하지 않은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난이도 요인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정확하게 도출하기 어렵고, 오히려 통역사의 역량에 따라 그 분석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설교통역 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본 연구는 설교통역의 난이

도를 좌우하는 요소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일 화자의 설교발화와 토론발화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같은 설교자가 설교 이외의 담화에 참여한 공신력 있는 방송 데이터를 활용하여, 화자 개인의 발화 스타일이나 신학적 배경 등의 외적 요인을 통제하고, 담화 유형의 차이만을 독립 변수로 설정할 수 있는 비교 조건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동일 화자의 설교와 토론을 비교하는 설계는, 단순히 사례를 나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역의 난이도를 결정짓는 담화 유형 자체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가장 적합한 조건이라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담화 특성에 기반한 난이도 요인을 정리하는 기초연구로서,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통역 데이터를 대상으로 연구를 확장할 것이다. 이번 연구는 분석의 틀을 정립하는 선행 단계로 가능하며, 향후 보다 실질적인 교육 및 훈련 모델 개발로 확장할 계획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설교통역의 특수성과 담화적 난이도, 관련 통역교육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3장에서는 분석 대상 데이터와 분석 방법론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설교발화와 토론발화의 비교·분석을 통해 설교발화의 형태적, 어휘적 특성을 규명하고, 5장 결론에서는 설교통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설교통역 훈련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설교통역의 특수성과 담화적 난이도

예배통역은 일반적인 회의통역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적 측면을 지닌다. 단순한 언어 전달을 넘어, 설교자의 메시지를 영적 흐름과 감정까지 고려해 전달해야 하며, 이로 인해 통역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신혜인(2019, p. 71)은 설교자와 통역사는 하나님 말씀의 정확한 전달이라는 동일한 임무를 갖고 있어 설교통역사에게는 ‘이중의 충실성’이 요구된

다고 강조하였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성경)에 대한 충실성, 둘째는 설교자의 설교내용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것이다. 설교통역은 단순한 언어전달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사역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일반 회의 통역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지닌다.

한편, 설교는 본문에 대한 설명과 적용을 통해 청중의 신앙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종교 담화로서 다양한 언어전략이 활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설교 통역사는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역할을 넘어서 설교자가 본문을 해석하고 신학적 맥락에서 메시지를 재구성하는 방식과 구조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임도균(2023, p. 218)은 균형 잡힌 성경에 충실한 설교를 위해서는 이성적인 성경적 가르침과 함께 감성적인 영역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채경락(2017, p. 166)은 설교는 전달이고 전달의 생명은 선명성이라고 하며,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는 중심 명제의 선명함이 중요한데 이는 고대 수사학에서 현대 스피치 이론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김대혁(2016, p. 220)은 설교자는 주해적 과정과 설교화 과정만이 아니라, 이 사이를 연결하는 원리화 및 신학화 과정에서도 장르적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통역사 역시 본문을 해석하고 구조적인 의도를 파악하는 역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설교에서 자주 활용되는 성경적 비유는 설교통역 난이도를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박현신(2024, p. 279)은 성경적 비유 설교를 위해서는 비유 해석의 원리를 따라 철저한 주해 과정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당시 원 청중을 향한 저자의 의도와 예수님의 목적을 따른 적용을 현 청중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역사 역시 본문 속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유가 포함된 설교는 통역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소일 것이다.

강민정(2019, pp. 28-29)은 목회자의 설교발화에 자주 등장하는 담화전략으로 청자가 신적 대상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소유/소속 발화’, 설교자의 생각을 객관화하여 강조하는 ‘강조발화’,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해 적절한 예를 들어 제시하는 ‘예시 발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함께 해야함을 강조하는 ‘결속력 발화’, 마땅히 하거나 되어야 하는 ‘당위 발화’,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때 변화가 생긴다는 ‘변화발화’, 앞뒤 상황

을 반대되거나 일치하지 않게 하는 ‘역접발화’, 청자들의 행위의 목적을 밝혀 책임감과 사명감을 심어주는 ‘목적 발화’를 제시했다. 이는 설교통역사에게 화자의 감정선까지 이해하고 충실히 재현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한다.

이처럼 설교통역의 난이도는 단순히 발화속도나 어휘와 같은 요인에 그치지 않고, 설교의 복잡성에서 비롯된다. 복잡성의 예로, 신혜인(2024, p. 104)은 호소력 중심의 설교텍스트를 통역하는 경우 비언어적 요소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호소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통역교육이 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홍설영(2021, p. 274)은 설교통역에서는 국제회의 동시통역과는 달리 내용의 압축과 요약은 적극 구사하고 텍스트에 대한 적극적인 재구성과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는 선포된 말씀을 ‘소화’하도록 청자 친화적인 속도와 전달력을 확보하는 것이 영적감화를 돕는 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설교통역사는 때때로 발화의 구조를 바꾸고 핵심 명제를 강조하거나 생략하는 판단을 하며 통역을 수행하게 된다.

문화적 조정도 설교통역의 중요한 부분이다. 김보애(2020, p. 108)는 한 일 간 기도통역 사례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한국어와 달리 일본어에서는 ‘あなた(당신)’가 주요 지칭어로 사용된다는 점을 들어, 언어 간 단어 선택이 단순한 번역을 넘어 문화적 맥락까지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2.2 설교통역 교육의 필요성과 비영어권 확장

본 연구는 설교통역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요인을 규명하는 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설교통역 훈련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교의 복합적인 담화 유형은 통역사에게 단순한 언어능력을 넘어 신학적 해석력과 표현전략을 요구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비숙련 통역사들이 예배통역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은 경향은 외국의 설교통역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신혜인, 2015, p. 99).

특히 국내 외국어 예배 환경을 살펴보면, 영어권을 중심으로 외국어 예배 및 동시통역 제공 체계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는 반면, 비영어권에서는 외국어 예배 및 예배통역 인프라 전반과 통역인력, 훈련체계가 모두 취

약한 실정이다. 해당 언어권에 특화된 설교통역 연구는 드물고, 통역훈련 커리큘럼 개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설교통역사의 역량이나 수행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다우니(Downie, 2023, p. 86)는 규범적 접근방식은 연구자가 자신이 설정한 전문통역의 기준에 따라 교회통역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실제 교회 현장에서 설교통역은 주로 비전문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직업적 기준보다는 섬김의 자세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다. 교회에서 통역은 자원봉사보다 섬김으로 이해된다(Hokkanen, 2012, p. 299). 섬김은 신앙적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자원봉사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자원봉사자의 통역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방안이 절실하다.

더욱이 최근 국내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비영어권을 포함한 외국어 설교통역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강신아와 최은정(2024, pp. 251-252)은 외국어 예배부 봉사자들이 선교적 사명으로 봉사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먼 외국의 선교지에서 만났던 외국인을 이주민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귀한 경험이다”, “한 사람을 섬겼을 뿐인데 그 사람을 통해 본국에 있는 가족들, 마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주민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없는 교회를 이주를 통해 경험하게 되었다”와 같이 답변하였다. 이와 같은 응답은 외국어 예배가 선교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Kim(2025, p. 19)은 한국은 서양 선교사들의 헌신 덕분에 이제는 해외 각지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는 해외선교는 물론이고,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사명감 있는 기독교인이 통역사로서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연구자이자 예배통역사로서,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설교통역의 난이도 요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비영어권 이주민이나 방문자를 위한 예배 접근성이 낮은 상황에서, 설교발화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우니(2023, 86)는 교회통역 연구를 실천가 중심 접근(for interpreting), 기술적 접근(descriptive approach), 규범적 접근(prescriptive approach)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강점과 한계를 인식하며 통합적 시각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향후 연구는 현상 분석을 넘어, 교회통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 교육과정 개발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의 축적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문과 현장이 연계되는 실질적 기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특정 언어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지는 않지만, 설교통역의 난이도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비영어권을 포함한 예배통역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모델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설교통역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동일한 화자의 설교발화와 토론발화를 수집하고, 각 발화의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교발화’는 기독교 예배에서 청중에게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적을 지닌 담화로 정의하였다. 이에 반해 ‘토론발화’는 특정 주제에 대해 타인의 질문에 응답하거나 의견을 교환하는 대화적 담화 유형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설계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설교 경험이 풍부하고 공적 담화 참여 이력이 있는 세 명의 목회자를 선정하였다. 이들은 모두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바 있으며, 동일 시기 설교 영상도 공개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동일 화자의 설교 및 비설교 담화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였다.

3.1 데이터 처리

연구에서는 목회자 A, B, C 세 명의 설교발화와 토론발화 데이터를 각각 수집하고, 각 발화 유형에 따라 어떠한 형태적, 어휘적 특성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토론발화 데이터는 CTS 기독교 TV(이하 ‘CTS’)의 ‘한국교회를 논하다’ 500회 특집(2024년 8월 2일 방송)에서 발췌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목회자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출연해 한국교회의 다양한 현안을 토론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500회 특집은 ‘한국교회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이라는 주제로, 사회자와 토론자 모두 목회자가 출연하였다.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가 사회를 맡고, 토론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한규삼 목사(충현교회)가 맡았다.

위 특집 방송에서는 각 목회자가 신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발화하였는데, 그 주제나 내용면에서 설교발화와 비교하기 용이하였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담화로서의 토론적 성격이 있어, ‘설교발화’와 ‘토론발화’의 각 경우에 있어, 통역 난이도를 비교하기에 적절한 자료로 판단하였다.

토론발화 데이터는 ‘한국교회를 논하다’ 500회 특집 방송 풀영상에서 사회자를 제외한 세 명의 목회자 A, B, C의 발화를 전사한 텍스트이다. 각 발화자가 순차적으로 토론하는 형태였는데, 발화자 별로 발화 내용을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정리한 결과, 각각 약 10분 분량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발화시간은 초 단위로 환산하였고, 전사한 텍스트에서 공백, 쉼표, 마침표 등 분석에 불필요한 문장부호를 제거한 후 음절수를 산정하였다.

한편, 설교발화 데이터는 위의 세 목회자가 소속된 교회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2024년 7월 14일 주일예배 설교 영상을 수집하였다. 위 토론방송의 날짜와 근접한 시간으로 선택하여 분석 대상 간 발화 특성의 변화 등 변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설교 중 기도부분은 제외하고, 도입부 각각 약 10분 분량을 전사하였고, 토론발화와 마찬가지로 공백, 쉼표, 마침표 등 분석에 불필요한 문장부호를 제거하는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표 1

발화시간 (단위: 초)

분류	A	B	C	합계
설교발화	602	606	604	1812
토론발화	531	545	667	1743

전사 과정에서는 ‘어..’, ‘음..’, 등의 특별한 의미나 기능이 없는 군말뿐 아니라, ‘자’, ‘이제’ 등 화제를 전환하거나 청중과 상호작용 기능을 지닐 수 있는 담화표지도 다수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표현이 의미 기능은 미약하더라도, 일관된 기준에 따라 모두 텍스트에 포함하고 음절 수 산정에도 반영하여 담화 유형 간 정량 비교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일 화자의 설교발화와 토론발화를 비교하여 설교통역에서 어떠한 특성이 확인되는지, 그리고 그 특성이 설교통역의 난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3.2 교회용어 추출

본 연구에서는 설교발화와 토론발화에 등장하는 종교적 어휘 중 교회 예배 및 신앙생활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교회용어’로 정의하였다. 여기에는 신학적 전문용어, 성경 관련 용어, 그리고 실제 교회 현장에서 사용되는 실천적 표현이 모두 포함된다. 교회 담화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 단위를 실천적 사용 기반으로 설정하였다.

어휘 분석은 연구자가 직접 전사 텍스트를 면밀히 검토하며 수작업으로 추출하였고, 분류 기준은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적용하였다. 설교발화 및 토론발화의 전사 텍스트에서 우선 후보 어휘를 예비 추출한 후, 각 어휘가 교회용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수립했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라도, 기독교 설교 맥락에서 교리적 또는 신앙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교회용어로 분류하였다.

교회용어 분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였다.

- 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독교 용어로 분류된 단어는 교회 용어로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복음’, ‘신앙고백’, ‘성도’ 등이 해당한다.
- ② 성경용어 중 ‘마태복음’,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등 성경의 책 이름과 ‘예레미야’, ‘이사야’ 등 인명도 교회용어로 분류하였다.
- ③ ‘섬김’과 같이 일상어로도 사용되지만 교회 맥락에서 교리적 의미를 지니는 단어는 국내 개신교 콘텐츠 플랫폼 ‘갯피플’의 설교 콘텐츠 제목에 등장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섬김’, ‘사귄과 나눔을 위한 섬김’ 등 제목에서 확인된 단어는 교회용어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역’, ‘부흥’, ‘선교’ 등의 단어도 교회용어에 포함하였다.

- ④ 성경에 등장하지만 일반명사로 오인될 수 있는 단어 중 ‘홀리넷’에서 제공하는 ‘홀리 성경사전’에 수록된 단어의 경우 교회용어로 분류하였다. 예컨대 ‘애굽’, ‘광야’, ‘가시나무’ 등은 신학적 상징을 지니는 경우가 많으며, ‘아시아’도 지금의 대륙 개념이 아닌 고대 소아시아 지역을 지칭하므로 교회용어에 포함하였다.
- ⑤ ‘씨뿌림 비유’, ‘그물 비유’ 등 복음서에 등장하는 성경적 비유 표현은, 단어 자체는 일반명사일지라도 해당 내용을 모르면 통역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교회용어로 분류하지 않고, 별도로 분석하였다.
- ⑥ 위의 ①~④의 분류기준은 충족하지 않지만 교회 담론에서 사용되는 ‘이분법적 신앙’, ‘교회세습’, ‘선지자적’ 등의 개념어는 ‘비전통적 교회용어’로 구분하여 다루었다.
- ⑦ 인명과 지명을 포함한 고유명사는 위 기준에 따라 교회용어 또는 ‘기타용어’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유대인’, ‘이집트’는 교회용어로, ‘프톨레미 왕조’, ‘페르세폴리스’ 등은 기타용어로 분류하였다. 한편 ‘악의 세력’, ‘셀류코스 왕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임재’ 등 일부 단어는 위 기준에는 명확히 부합하지 않지만, 담화맥락상 교회용어로 기능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교회용어에 포함하였다.

추가로, 본 논문에서 말하는 성경은 기본적으로 ‘개역개정’을 기준으로 하되, 어휘를 분류할 때는 ‘공동번역’, ‘새번역’, ‘개역한글’, ‘현대인의성경’ 등 다른 성경 번역본도 참고하였다. 또한 동일한 단어가 반복 등장하는 경우, 중복을 포함하여 빈도 수를 집계하였다.

본 연구는 탐색적 성격의 기초연구로, 분석틀의 객관성과 타당성은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정교화해나갈 예정이다.

3.3 분석도구

텍스트 분석은 정량적 분석과 교회용어 추출 외에도, 웹 기반 시각화 도구인 Voyant Tools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Voyant Tools은 단어의 빈도, 위치, 반복 패턴 등을 시각화하여 텍스트의 언어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로, 담화 간 어휘적 차이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Voyant Tools의 Documents 탭을 활용하여 설교발화와 토론발화 각각에 대한 총 단어 수, 고유 단어 수, 어휘 다양성 비율, 문장당 평균 단어 수 등의 정량 지표를 수집하였다.

또한 Cirrus 탭의 워드클라우드 기능을 통해 담화에서 빈도가 높은 상위 50개 단어를 시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교와 토론 담화의 핵심 어휘군의 사용 경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Voyant Tools 기반의 분석은 설교발화와 토론발화 간 어휘적 특성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역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복성(어휘나 표현의 반복 정도), 주관성(화자의 신념이나 감정이 반영된 정도), 즉흥성(발화의 계획성과 구조적 일관성 여부) 등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4.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분석 항목은 크게 두 범주로 구성된다. 첫째, 형태적 특성에서는 음절 수, 문장 수 등을 측정하여 설교발화와 토론발화의 구조적 차이를 비교하였다. 둘째, 어휘적 특성에서는 교회용어 및 기타 관련 용어의 사용 빈도를 분석하고, Voyant Tools를 활용한 정량 지표를 통해 두 담화 유형의 어휘적 특성과 통역 난이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4.1 형태적 특성

4.1.1 음절수

표2는 설교발화와 토론발화를 진사한 텍스트에서 공백, 쉼표, 마침표 등 불필요한 문장부호를 제거한 후 초당 음절수(Syllables Per Second, SPS)를 산정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세 명의 화자 A, B, C 모두 설교발화보다 토론발화에서 음절수가 높게 나타나, 토론 시 발화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평균 기준으로 설교발화의 초당 음절수는 4.8, 토론발화는 5.2로, 토론에서 발화 속도가 더 빠른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설교에서는 비교적 느리고 분절된 말하기가 이루어진 반면, 토론에서는 더 많은 양의 언어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려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발화속도가 빠르면 통역사는 단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므로 인지적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단순히 음절 수 기준으로만 보면, 설교발화가 토론발화보다 통역 난이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

표 2
설교발화와 토론발화의 초당 음절수(SPS) 비교

분류	A	B	C	평균
설교발화	4.8	4.9	4.7	4.8
토론발화	5.2	5.5	4.9	5.2

다만 통역 언어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주는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말과 어순이 같고 의미 전달이 한 음절 단위로 명확히 분절되는 언어의 경우 발화속도가 느릴수록 통역이 수월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어순이 다른 언어의 경우, 오히려 너무 느린 발화가 통역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발화속도와 통역 난이도의 관계는 언어 구조와 통역전략의 차이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화자 별로 살펴보면, A 화자는 설교발화에서 초당 4.8, 토론발화에서 5.2로, 두 담화 유형 간 속도 차이는 0.4였다. B 화자는 설교에서 4.9, 토론에서 5.5로 0.6의 차이를 보여 세 화자 중 가장 속도의 차이가 컸다. 특히 B 화자는 발화속도가 가장 빨랐는데, 설교에서는 평균을 약간 웃도는 정도였지만

토론에서는 평균을 크게 웃도는 빠른 속도로 발화하였다. C 화자는 설교에서 4.7, 토론에서 4.9로 음절수의 차이가 0.2로 가장 적었다. C 화자는 설교와 토론 모두에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설교에서는 청중을 의식하여 발화속도를 조절한 반면, 토론에서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발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1.2 문장수

표3은 설교발화와 토론발화에서 마침표의 사용 빈도를 집계한 결과이다. 마침표는 문장의 분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장부호로, 사용빈도는 문장수의 간접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구어체 담화인 토론발화는 수많은 절이 이어지는 비문장 구조가 많아 문장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며, 설교발화 역시 발화라는 수행적 특성상 문어적 문장구조와 구어적 표현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마침표를 기준으로 문장을 구분하는 방식은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문장 수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정량 지표로서 마침표 수를 활용하였으며, 문장 종결 기능을 고려하여 물음표와 느낌표도 모두 마침표로 처리하여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였다.

설교발화에서는 총 267회의 마침표가 사용된 반면, 토론발화에서는 113회로 나타나 설교발화가 약 2.4배 더 자주 문장 분절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설교가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반대로 토론은 길고 연결된 문장 구조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

설교발화와 토론발화에서 마침표 사용 빈도 비교

분류	A	B	C	합계
설교발화	112	72	83	267
토론발화	40	30	43	113

화자별로 살펴보면 A 화자는 설교발화에서는 112회, 토론발화에서 40회를 기록하여 세 화자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설교와 토론 간 문장 수의 차이가 3배 가까이 벌어진 셈이다. B 화자는 설교에서 72회, 토론에서 30회, C 화자는 설교에서 83회, 토론에서 43회로 나타나 B와 C 역시 약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설교가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장을 짧게 나누고 논리적 구조를 분명히 하는 반면, 토론은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발화 속에서 문장 연결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설교발화는 문장이 짧고 분절이 자주 이루어지는 만큼, 개별 문장의 의미 파악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장이 짧다고 해서 반드시 통역 난이도가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문장이 많아질수록 발화가 여러 의미 단위로 병렬적으로 나뉘게 되며, 이로 인해 다음 문장의 내용이나 방향을 예측하고 연결하는 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는 통역사가 더 많은 의미 단위를 처리해야 함을 의미하며, 개별 문장의 이해뿐 아니라 문장 간의 논리적 흐름과 의미적 맥락을 정교하게 조율하는 해석력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설교는 이러한 짧은 문장들의 연속 속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점층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때문에, 통역사는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각 문장의 기능을 이해하며 전달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된다.

한편, 분석 과정에서 담화표지 처리 여부도 고려되었다. 담화표지는 설교와 토론 모두에서 빈번하게 확인되었으며, 발화 전환, 청중 호소, 논리 연결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발화 의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간주하여, 전사가 가능한 담화표지는 모두 텍스트에 포함시켜 분석에 반영하였다.

형태적 특성을 정리하면, 설교발화는 일반적으로 토론발화보다 문장이 짧고 발화속도가 느리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말과 어순이 같은 언어 간 통역에서는 통역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발화 구조만으로 통역의 난이도를 단정할 수는 없다. 문장이 짧을수록 개별 단위의 이해는 수월할 수 있지만, 문장 간 의미 연결성이나 맥락적 일관성에 따라 오히려 더 높은 인지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 절에서는 설교발화와 토론발화의 어휘적 특

성을 중심으로 통역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4.2 어휘적 특성

4.2.1 교회용어

3.2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교회용어를 추출하였다. 표4는 A, B, C 화자의 설교발화와 토론발화에서 교회용어 고유 용어 수 및 총 출현 빈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용어 수’는 중복을 제외한 고유 단어의 개수를, ‘총 출현 빈도’는 해당 용어가 담화 내에서 실제로 등장한 횟수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 설교발화에서는 A 화자가 37개(100회), B 화자가 30개(93회), C 화자가 28개(118회)의 교회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토론발화에서는 A 화자가 4개(12회), B 화자가 15개(34회), C 화자가 17개(34회)를 사용하여, 교회용어의 양과 빈도 모두 설교발화가 토론발화보다 현저히 많았다.

특히 A 화자는 설교에서 37개의 교회용어를 총 100회 사용한 반면, 토론에서는 4개의 용어만 12회 사용하여 담화 유형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A 화자가 설교와 토론 사이에서 어휘 사용에 있어 가장 뚜렷한 구분을 보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C 화자는 설교발화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28개의 교회용어를 사용했지만, 총 출현 빈도는 118회로 가장 높았다. 이는 C 화자가 특정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담화 스타일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반면 C 화자의 토론발화에서는 17개의 교회용어가 비교적 고르게 사용되었으며, 총 34회 등장하여 반복성은 낮은 편이었다.

표 4

설교발화와 토론발화에서 교회용어 출현 양상

분류		A	B	C
설교발화	용어 수	37	30	28
	총 출현 빈도	100	93	118
토론발화	용어 수	4	15	17
	총 출현 빈도	12	34	34

화자별 교회용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화자의 설교에서는 ‘성경’이 12회로 가장 많이 등장했고, ‘안식일’, ‘유월절’, ‘칠칠절’ 등 절기 관련 용어와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고레스’, ‘셀류코스 왕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등 구약 성경사 속 고유명사가 빈번히 사용되었다. 반면, 토론발화에서는 ‘복음’, ‘공동체’, ‘섬김’, ‘사역’ 등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용어가 주를 이루었다.

B 화자의 설교에서는 ‘모세’가 28회로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였고, ‘히브리’, ‘요게벳’, ‘게르숨’, ‘이드로’, ‘스테반’ 등 성경 인물 이름과 ‘출애굽기’, ‘사도행전’과 같은 성경서명이 등장하였다. 토론발화에서는 ‘기도’, ‘선교’, ‘복음’ 등 실천 중심의 교회용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C 화자의 설교발화에서는 ‘예레미야’ 20회, ‘예레미야서’ 5회, ‘소명’ 14회, ‘부르심’ 14회, ‘선지자’ 12회 등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어휘가 핵심을 이루었다. 토론에서는 ‘하나님 나라’, ‘부흥’, ‘미션’, ‘베드로전서’, ‘마태복음’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설교가 특정 인물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반복성을 통해 메시지를 강화한다는 특성을 반영한다. 특히 설교 청중이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나 신앙 배경을 갖춘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반복성과 교회용어 중심의 담화 구성은 의도적인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설교통역에서는 교회용어에 대한 사전지식뿐 아니라, 특정 용어를 반복적으로 자연스럽게 재현할 수 있는 통역전략이 요구된다.

4.2.2 비전통적 교회용어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교회용어와는 구별되는 현대 신학 담론의 개념 어들을 ‘비전통적 교회용어’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담화 주제의 다변화 속에서 최근 사용 빈도가 증가하는 용어들을 포함한다. 다음의 표 5는 세 화자의 설교발화와 토론발화에서 비전통적 교회용어의 고유 용어 수와 총 출현 빈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표 5
설교발화와 토론발화에서 비전통적 교회용어 출현 양상

분류		A	B	C
설교발화	용어 수	-	-	1
	총 출현 빈도	-	-	2
토론발화	용어 수	-	7	9
	총 출현 빈도	-	7	14

분석 결과, 설교발화에서는 C 화자를 제외한 A와 B 화자의 발화에서 비전통적 교회용어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C 화자도 설교에서는 단 1개의 용어를 2회 사용하는 데 그쳤다. 반면 토론발화에서는 B 화자가 7개(7회), C 화자가 9개(14회)의 비전통적 교회용어를 사용하여, 설교발화와 비교해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B와 C 화자의 토론에서는 ‘종교 다원주의’, ‘내세주의 신앙’, ‘거룩함의 길’ 등 현대 신학적 담론에서 유래한 개념어가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어휘는 고전적 교회 담론의 범주를 넘어 확장된 종교어휘 사용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토론이라는 발화 유형은 설교보다 개인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출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어를 활용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개별 화자의 담화 스타일뿐 아니라, 세대적 배경과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화자들의 정확한 연령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개된 언론 보도 등을 고려할 때 A 화자는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반면, C 화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로 추정된다. 이러한 세대 간의 언어 사용 차이는, 전통적 용어에 대한 선호도와 비전통적 개념어 수용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설교통역의 관점에서 볼 때, 비전통적 교회용어는 빈도 자체는 낮더라도 통역상의 난이도를 높이는 잠재적 요인이다. 통역사는 익숙하지 않은 신학 용어나 최신 담론에서 파생된 개념어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해당 용어가 등장하는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역사는 비전통적 용어뿐 아니라, 종교 담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은유와 비유 표현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4.2.3 은유와 비유

설교발화에서는 은유 표현은 확인되었으나 비유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고, 토론발화에서는 은유와 비유 표현이 모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율법에 철저히하지만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를 지칭하는 ‘바리새인 교만’, 부정한 것을 통해 거룩한 대상을 모독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돼지 모독’,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의 순종을 상징하는 ‘신을 벗으라’와 같은 은유적 표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표현은 설교자의 메시지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시 1>

성경에서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들의 대표라고 한다면 누가 딱 떠오르니까. 교만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교만한 사람의 대표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무리들이 있죠. 누구, 그렇죠 바리새인들 그렇죠. 우린 딱 교만 하면은 성경에서 바리새인이 딱 떠오릅니다. (A 화자의 설교발화 중 일부)

표 6

설교발화와 토론발화의 은유 및 비유 표현

분류		A	B	C
설교발화	은유	2	1	-
	비유	-	-	-
토론발화	은유	1	-	
	비유	-	-	2

반면, 토론발화에서는 은유와 더불어 복음서에 기반한 비유 표현이 등장하였다. ‘씨뿌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한 대표적 표현이며, ‘그물’은 천국을 바다에 던진 그물로 표현한 복음서의 내용을 반영한다. 이외에도

‘예수잔치’는 원래 복음의 기쁨과 초청을 상징하는 긍정적 의미이지만, 토론 발화에서는 교회 부흥과 동시에 공동체적 단절이 시작되었다는 역설적 의미로 재해석되어 사용되었다.

<예시 2>

어려울 때 계속 씨를 뿌리고 가라지가 무성한 것 같은 생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고 최후에 하나님이 하실 그런 이제 심판 고기를 그물에 잡아서 또 그릇으로 이렇게 분리한다는 비유에서 보듯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을 같이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나라가 곧 팽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팽창도 수적 성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 화자의 토론발화 중 일부)

이와 같은 은유와 비유 표현은 설교자 혹은 화자의 신학적 해석과 설교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활용되며, 통역과정에서는 높은 해석 능력과 문화적 이해를 요한다. 특히 비유의 경우 문자적 해석이 의미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통역사는 원 문맥에 맞는 종교적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전달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4.2.4 기타용어

교회용어, 비전통적 교회용어, 은유 및 비유에 포함되지 않는 인명, 지명, 단체명, 불교용어, 전문용어 등은 ‘기타용어’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본 연구의 종교어휘 분석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통역 시에는 배경지식이 요구되거나 해석상의 난이도를 유발할 수 있는 고유명사 또는 전문어휘로 간주된다.

표7은 설교발화와 토론발화에서의 기타용어 출현 양상을 비교한 것이다. 설교발화에서는 A 화자가 18개의 기타용어를 총 33회, B 화자가 14개의 기타용어를 총 21회 사용하였다. 반면 C 화자의 설교발화에서는 기타용어 사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토론발화에서는 A, B, C 화자가 각각 4개, 4개, 3개의 기타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총 출현 빈도는 각각 8회, 7회, 5회로 나타났다.

기타용어 중에는 예를 들어 ‘키루스 실린더’, ‘프톨레미 왕조’ 등 성경 본문에는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신학적 배경지식이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용어들은 특히 설교발화에서 등장하며, 이는 설교의 담화 특성상 성경의 역사적·지리적 맥락에 대한 해설이 강조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표 7
설교발화와 토론발화에서 기타용어 출현 양상

분류		A	B	C
설교발화	용어 수	18	14	-
	총 출현 빈도	33	21	-
토론발화	용어 수	4	4	3
	총 출현 빈도	8	7	5

반면 토론발화에서는 주제에 대한 의견 제시와 논리적 설명이 중심이 되므로, 배경 설명이나 고유명사 사용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발화의 목적과 구성 방식에 따라 기타용어의 사용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통역의 관점에서 볼 때, 기타용어는 종교적 핵심 개념어는 아닐지라도 그 해석과 전달을 위해 사전지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역사에게는 추가적인 준비와 학습이 필요한 범주라 할 수 있다.

4.2.5 Voyant Tools 분석

Voyant Tools의 Documents 탭을 통해 설교발화와 토론발화에 대한 정량적 언어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다. 세 명의 화자의 설교와 토론의 총 길이는 각각 1812초, 1743초로 각각 약 30분 분량에 해당한다. 주요 정량 지표는 다음 표8과 같다.

분석 결과, 설교발화는 어휘 다양성 비율이 56%로, 토론발화의 4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설교발화에서 반복 없이 다양한 어휘가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토론발화는 특정 어휘의 반복 빈도가 높아 어휘적 다양성이

낮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교회용어 분석에서 설교발화는 특정 개념어의 반복 빈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어휘적 다양성은 오히려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설교가 핵심 용어의 반복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면서도 다양한 단어를 병행 사용하여 어휘의 범위를 확장하는 담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8

설교발화와 토론발화에 대한 정량적 정보 (Voyant Tools의 Documents)

분류	총 단어 수 (Words)	고유 단어 수 (Types)	어휘 다양성 비율 (Ratio)	문장당 평균 단어 수 (Words/Sentence)
설교발화	3,063	1,708	56%	11.8
토론발화	3,374	1,608	48%	30.1

또한 문장당 평균 단어 수는 설교발화가 11.8개, 토론발화는 30.1개로, 토론의 문장이 훨씬 길게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마침표 분석(표 3)의 결과와도 일치하며, 토론에서는 한 문장에 복수의 사고 단위가 연결되는 복합적 구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표현의 반복, ‘그래서’, ‘또’ 등의 접속어 사용이 잦은 것도 이러한 구조적 특성과 관련된다.

한편, Voyant Tools의 Cirrus 기능을 활용해 각 담화 유형의 상위 50개 단어를 시각화한 워드클라우드를 생성한 결과, 언어 사용의 특성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림1을 보면, ① 설교발화 워드클라우드에서는 ‘여러분’, ‘거예요’ 등 청중을 직접 지칭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표현이 확인되었고, 문장 종결 어미의 반복이 리듬감과 설득력을 강화하는 담화적 특성을 형성했다.

② 토론발화 워드클라우드에서는 ‘그런’, ‘뭘’, ‘이제’, ‘이렇게’, ‘그래서’ 등 화제 전환과 사고 흐름 연결을 위한 즉흥적 표현이 빈번히 나타났다. 또한 ‘저는’, ‘생각이’ 등 개인 의견 개진을 나타내는 표현도 높은 빈도를 보였다.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상 가능한 차이라고 해서 그것이 통역 훈련에 적용 가능한 지식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통역의 난이도는 단순한 주관적 인식이 아닌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고 담화유형에 따른 경향성을 도출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예측 가능한 차이를 측정 가능하고 교육 가능한 분석 기준으로 구조화했다는 점에서, 실천적·교육적 기여 가능성을 갖는 기초연구라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향후 설교통역 훈련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교발화 그 자체의 특성을 밝혀 그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분석연구이다.

그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 세 명의 목회자의 설교발화 및 토론발화를 선정하고 각 형태적, 어휘적 특성을 규명하여 설교통역의 난이도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형태적 특성 측면에서 설교발화는 발화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문장이 짧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어순이 유사한 언어 간 통역 상황에서는 통역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 개의 문장이 한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면, 문장이 자주 분절될수록 더 많은 의미 단위를 처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통역의 부담은 높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문장 간 연결성과 논리 흐름을 재구성해야 하는 부담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설교발화는 이러한 짧은 문장들의 점층적 전개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통역사에게는 문장 간 맥락과 구조적 흐름을 포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어휘적 특성에서는 설교발화가 교회용어 사용에서 종류와 빈도 모두 토론발화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설교발화가 특정 신학적 개념이나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구성한다는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설교 청중이 신앙적 배경지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핵심 교회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은 설교 담화의 전

략적 특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설교통역사는 해당 용어의 신학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반복적 표현을 적절히 변주하거나 보강하여 청중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비전통적 교회용어는 주로 토론발화에서 사용되었으며, 설교발화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이는 설교가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신학 담론에 기반하는 반면, 토론에서는 화자의 개인적 해석과 현대적 담론이 적극 반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역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전통적 용어가 예상치 못한 난이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학적 개념어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준비가 요구된다.

은유와 비유 표현 역시 설교통역에서 중요한 난이도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설교발화에는 주로 은유가, 토론발화에는 은유와 더불어 복음서 기반의 비유 표현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신학적 배경지식과 문화적 해석을 요하므로, 통역사는 단어 수준을 넘어서 원문의 의미를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해석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기타용어 분석 결과에서는, 설교발화에서 신학적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고유명사나 전문용어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설교가 성경 본문의 역사-지리적 배경을 해설하는 과정을 동반하기 때문이며, 통역사는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사전 학습이 필요하다.

Voyant Tools 기반 정량분석에서는 설교발화의 어휘 다양성 비율이 토론보다 높았으며, 문장당 평균 단어 수는 토론에서 더 길게 나타났다. 이는 설교가 핵심 개념어를 반복하면서도 다양한 표현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구조이고, 토론은 즉흥적이고 연결어가 많은 복합적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통해서도 설교는 청중 지칭 및 정서적 표현이, 토론은 연결어 및 자의적 표현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담화적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설교통역은 단순히 발화 속도가 느리거나 문장이 짧은 이유로 통역이 쉽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교회용어의 반복, 은유 및 비유의 해석, 기타 신학적 배경어휘의 사용, 감정적 어조 등 복합적 요인이 존재하며, 이는 설교통역만의 고유한 난이도를 형성한다.

따라서 설교통역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구체적인 훈련 내용

을 포함해야 한다:

- ① 설교 특유의 말하기 속도와 문장 구조에 익숙해지는 훈련
설교는 비교적 천천히, 짧은 문장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발화 패턴에 익숙해지도록 설교 원고를 듣고 따라 하거나, 짧은 문장 사이의 의미 연결을 훈련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 ② 교회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와 표현을 자연스럽게 통역하는 훈련
교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들을 문맥에 맞게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통역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 ③ 은유 및 비유 표현과 성경 배경지식을 이해하는 훈련
성경의 상징적 표현이나 은유 및 비유는 문자 그대로 옮기면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배경지식과 함께 문맥에 맞게 풀어 설명하는 훈련이 중요하다.
- ④ 청중의 감정을 고려하여 설득력을 살리는 통역 훈련
정보 전달뿐 아니라 청중을 향한 호소나 격려, 위로의 어조를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며 통역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비영어권 예배통역을 짧지 않은 기간동안 계속 해 오고 있는 경험에서 비롯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동일 화자의 설교발화와 토론발화를 비교함으로써 화자 변수를 통제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나, 분석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겠다.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통역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설교통역 훈련 모델 개발로의 확장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향후 설교통역 교육과정의 체계화와 훈련 모델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갓피플. (n.d.). 섬김. 갓피플. 2024. 4. 2. 검색, <https://cnts.godpeople.com/s/%EC%84%AC%EA%B9%80>
- 강민정. (2019). 목사 ‘설교’ 담화분석. *한말연구*, 54, 5-33.
- 장신아, 최은정. (2024). 지역교회에서의 다문화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외국어예배부 봉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9(1), 235-261.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n.d.). 복음. 국립국어원. 2024. 4. 2. 검색,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149880&searchKeywordTo=3
- 김태혁. (2016). 원리화/신학화 과정에서의 장르적 고려와 설교학적 함의: 의미론과 화용론의 통합. *성경과 신학*, 79, 191-228.
- 김보애. (2020). 한일 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あなた'에 관한 연구. *일본학보*, 125, 93-110.
- 박현신. (2024). 비유 설교에 관한 연구: 씨 뿌리는 비유를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74, 250-301.
- 성광침례교회. (2024. 7. 14). 빌립보서 강해3 [비디오].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KR8UGy4BDuA&list=PPSV>
- 신혜인. (2015). 한국교회 설교통역의 특징에 대한 연구: 커뮤니티통역 및 국제회의통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6(2), 87-103.
- 신혜인. (2019). 설교통역의 충실성에 관한 고찰: 1973년 빌리 그래함 한국전도대회 통역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0(3), 67-89.
- 신혜인. (2024). 통역에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고찰 – 설교 순차 통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8(2), 85-110.
- 임도균. (2023). 본문의 감성이 전달되는 시편 설교: 시편 설교 형태와 전달법 제안. *복음과 실천신학*, 68, 197-222.
- 주안장로교회. (2024. 7. 14). 행전강해(18) [비디오].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_xJE3i7ccqk&list=PPSV
- 채경락. (2017). 성경적 설교를 위한 명제형 주제의 이론적 타당성과 실천적

- 활용법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43, 139-173.
- 충현교회. (2024. 7. 14). 예레미야 1:4-10 [비디오].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g3vAhRALWa4&list=PPSV>
- 한국교회를 논하다 500회 특집. (2024. 8. 2.). 한국교회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 [비디오].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l_1ArYjjixk&list=PPSV
- 홀리넷. (n.d.). 애굽. 한국컴퓨터선교회. 2024. 4. 2. 검색, http://www.holybible.or.kr/B_DICT_NEW/cgi/bdictftxt.php?DN=2534
- 홍철영. (2021). 예배 동시통역사의 업무 적응과 직업 정체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번역학연구, 22(3), 255-280.
- Downie, J. (2024). A critical review of church interpreting research. *Interpreting and Society*, 4(1), 67-94.
- Kim, B. (2025). Christian Missionary Interpreters in the Open Port Period and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Church Interpretation in Modern Korea. *Religions*, 16(5), 590.
- Hokkanen, S. (2018). Simultaneous church interpreting as service. In *Non-Professional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pp. 291-309). Routledge.

A comparative analysis of difficulty factors in sermon interpreting: Focusing on sermon and discussion speech by the same speaker

Boae Kim (boae_kim@naver.com)

Department of Korean-Japanes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sermon and discussion speech by the same speaker to identify linguistic factors influencing the difficulty of sermon interpreting. Key variables include speech rate, sentence length, lexical diversity, the frequency of church-specific terminology, and the use of figurative language. The results indicate that while sermons tend to be slower and syntactically simpler, they contain a higher frequency of repeated theological terms, metaphors, and religious concepts—a set of features that add to the complexity of sermon interpreting. Sermon discourse, in particular, is situated within the context of a faith community and is characterized by emotional engagement and persuasive intent. In light of these findings, we argue that training for sermon interpreters must go beyond linguistic competence to include theological literacy, discourse interpretation strategies, and techniques for emotional delivery. This study offers foundational insights for developing interpreter training models applicable to religious setting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non-English-speaking contexts.

Keywords: Sermon interpreting; interpreting difficulty; discourse type; church terminology; interpreter training

키워드: 설교통역, 통역의 난이도, 담화유형, 교회용어, 통역훈련

김보애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일과 초빙교수

boae_kim@naver.com

논문 투고일: 2025년 5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2025년 6월 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5년 6월 10일

게재 확정일: 2025년 6월 15일